

# 영화 앤트맨에 '현대차 3인방' 출격

현대차, 벨로스터·코나·싼타페 제공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마블(MARVEL)'과 손잡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가 전 세계에서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에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차는 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앤트맨과 와스프'의 촬영에 벨로스터와 싼타페, 코나를 제공했다. 마블의 대표 히어로 영화 '앤트맨'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앤트맨과 와스프'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허 미션과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스크린 속에 뛰어난 벨로스터, 코나, 싼타페 등 현대차 3인방은 영화 주요 장면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보라색 램프와 화려한 노란색 불꽃 장식의 '벨로스터 앤트맨'



앤트맨-현대차 콜라보레이션 포스터.

'카'는 영화 배경인 샌프란시스코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질주하며 현란한 도심 추격신을 펼친다. 특히 사물의 크기를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벨로스터 앤트맨카'의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들을 따돌리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가 대표사회공헌활동인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을 실시한다. LG디스플레이

## LG디스플레이 초등생 '초롱이 눈 건강교실' 실시

LG디스플레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롱이 눈 건강 교실'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LG디스플레이의 대표 사회 공헌사업이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 매년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다.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초등학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작년에 비해 25% 확대한 규모다. 올해까지 LG디스플레이 눈 건강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4만여명에 이른다.

눈 건강 교실은 강의식 교육이 아닌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뮤지컬 형태로 진행한다. LG디스플레이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 전문가와 뮤지컬 극단과 협력해 교육을 설계했다.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관리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동요 등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 요소와 접목시켜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장 부사장은 "시각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고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



중소벤처기업부와 르노삼성자동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4일 '민·관·공·동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을 가졌다. (왼쪽부터)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표이사, 홍중학 중기부 장관,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車부품업체 투자기금 150억 조성 협약

중기벤처부-르노삼성

중소벤처기업부와 르노삼성자동차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르노삼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총 150억원의 '민·관·공·동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의 절반은 르노삼성이,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낸다.

민·관·공·동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조성, 지난달 말까지 65개사에 걸쳐 총 6200억원이 조성됐다. 르노삼성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일하게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

이번에 조성된 150억원은 르노삼성이 국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과 협업해 초소형 전기차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등 미래차 핵심부품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7월 5일 (음 5월 22일) <http://www.saju4000.com>

<p><b> 쥐 </b> 4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60년생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 72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한 날. 84년생 뱀띠, 원숭이띠와의 거리가 순조롭다.</p>	<p><b> 말 </b> 54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6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드니 재물은 들어온다. 78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날이다. 90년생 물 흐르는 대로 버려두는 것도 한 방법.</p>
<p><b> 소 </b> 49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자. 61년생 어린 사람과 닮아 생기니 주의. 73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85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p>	<p><b> 양 </b> 55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67년생 태양은 항상 하늘에 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79년생 병이 왔으나 곧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91년생 가족의 협조로 힘든 일이 해결된다.</p>
<p><b> 호랑이 </b> 50년생 마음이 통하는 벗과 즐거운 만남을 갖는다. 6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4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6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를 다룰 일이 생긴다.</p>	<p><b> 원숭이 </b> 56년생 다툼이 생기니 쉬운 날이니 주의. 68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80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주는 날. 92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이는 날이 되겠다.</p>
<p><b> 토끼 </b> 5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둬라. 63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된다. 75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87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음이니 조금 참고 기다리자.</p>	<p><b> 닭 </b> 57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며 만사가 편하다. 69년생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81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 93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실수가 없다.</p>
<p><b> 돼지 </b>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따라서 싱숭생숭. 64년생 모란 돌이 정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하자. 76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8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마음만 불편.</p>	<p><b> 개 </b> 58년생 헛된 꿈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70년생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지게 되니 나서지 마라. 82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94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있다.</p>
<p><b> 뱀 </b> 53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65년생 지치고 힘든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77년생 하나를 뿌렸는데 열 개로 돌아온다. 89년생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p>	<p><b> 돼지 </b> 59년생 사람이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7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하라. 8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야 하는 날. 95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된다.</p>

**김상회의 四季**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사주 탓

언제부터인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묘하다. 남이 어떤 행위를 하면 쉽게 흥보면서 내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사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일이 꼬이면 사주 때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속은 편하다. 일이 잘 안 되는 건 사주 탓이니 자기의 책임도 털어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안이 된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벌인 사람이 있다. 때가 아니니 운세가 열리는 시기까지 일 년만 기다리라고 했다.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매출이 잘 나왔다. 그것 보라며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좋다고 한바탕 자랑을 하고 갔다. 문제는 그 뒤였다. 녀 달이 지나기 전에 매출이 꺾였고 자금운용이 곤란해졌다. 결국 일 년을 버티지 못했다. 문을 닫은 뒤에는 자기 능력을 사주의 재물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사주 탓을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대운이 그런 사주의 기운을 막고 있었다. 이번 운은 일 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을 것이었다. 새로 시작되는 대운은 재물이 조금씩 풀려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시간이 더 지나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제는 좋은 대운의 구간으로 들어섰으니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면 능력과 대운이 힘을 합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세상일의 성패는 내 능력 덕분에 잘 될 수도 있고 사주 탓에 안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일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얽히고설켜며 서로 좋고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 모든 일이 사주 탓이라면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사업은 망하고 승진은 탈락하고 시험 보면 떨어지려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러나 실재는 다르다. 사주가 안 좋아도 사업이 쪽쪽 뻗어나가고 시험을 보면 항상 합격하고 돈이 풀려오는 사람도 많다. 나를 둘러싼 일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무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일이 안 풀린다고 사주 탓만 하는 건 화풀이 밖에 안 된다. 화풀이로 잠시 시원해지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사주로 앞길을 내다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8			1	7	
		8		6				9
8	6	1						9
2	5	9		6	8	3		
7				3	2	6		
5			9		4			
6	4			1				
							2	7

			7					
			6		8	5		
					4	2	7	
	2				7			
5					2	4	3	
	8		1	3			6	
	6	5				1	2	
		4		1	3	8	7	
		8		2		3		

**스도쿠 정답**

2	9	8	6	7	5	4	3	1
8	6	1	3	2	7	9	5	4
9	1	7	8	6	4	2	3	5
5	9	2	8	7	1	6	4	3
1	8	9	4	6	5	2	7	3
7	6	4	2	5	1	9	8	3
6	5	2	9	7	8	3	1	4
3	4	1	6	7	8	5	9	2
8	7	9	5	1	2	6	4	3
4	5	2	9	7	6	8	1	3
9	8	6	1	5	7	4	2	3
3	1	6	7	8	4	9	5	2
5	9	2	6	8	1	7	3	4
7	6	4	2	5	1	9	8	3
6	8	1	4	9	7	5	2	3
1	3	7	1	6	7	8	5	9
1	6	5	8	7	9	2	4	3
8	7	9	5	1	2	6	4	3

문제 제공 = **보너스**